



[해설]
삼성-SK하이닉스
차세대 반도체
상업화 대기중
03



코스피 2246.13 (0.00)	→	코스닥 685.57 (0.00)
금리 (국고채 3년) 1.42 (-0.01)	↓	환율 (원·달러) 1168.70 (+4.10) (23일)



갤럭시 Z 예상이미지.

/렛츠고 디지털

(더블폴딩폰)

‘이제는 두번 접는다’ 삼성, 갤Z 연내 공개

네덜란드 IT전문 렛츠고디지털 삼성 ‘갤Z’ 랜더링 이미지 공개 안쪽, 바깥쪽 각각 한번씩 접혀 접으면 폰, 펴울땐 태블릿 크기

올해 중 스마트폰 화면을 두 번 접는 더블폴딩폰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더블폴딩폰을 연구 중에 있고 시제품 도 속속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면을 한 번 접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화웨이, 모토로라 등이 출시 했지만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은 내놓은 업체가 없는 상태다.

27일 네덜란드 IT 전문매체 렛츠고 디지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화면을 두 번 접는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매체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가 갤럭시Z를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개된 랜더링 이미지를 보면 갤럭시Z는 화면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한 번씩 두 번 접히는 모습이다. 화면을 다 펴면 태블릿처럼 넓은 화면으로 사용 가능하고, 2번 다 접으면 기존 스마트폰 화면과 비슷한 크기로 쓸 수 있다.

렛츠고 디지털은 삼성전자가 갤럭시Z라는 모델명을 택하는 것에 대해선 앞서 출시한 ‘갤럭시 폴드’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앞서 4월 스크린 결함 논란으로 5개월 만에 출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 다음 달 ‘언팩 2020’에서 공개 예정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과 나란히 이름을 Z로 맞추면서 폴더블 폰 선두주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놨다.

갤럭시Z는 화면이 두 번 접히는 만큼 가격은 갤럭시 폴드(230만 8000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렛츠고 디지털은 갤럭시Z 공개 시기 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내달 열릴 언팩에서 공개할지 하반기에 공개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과거 갤럭시 폴드 결함을 염두해 더 미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에 Z 형태로 접히는 폴더블폰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Z뿐만 아니라 G 형태로 안쪽으로 두 번 접히는 폴더블 폰에 대한 특허도 같이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접힌 상태에서 앞뒷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스마트폰 제조 업체도 더블 폴딩폰에 관심을 갖는 추세다. 중국 TCL이 지난해 10월 10인치의 화면에 한 면은 안으로 접하고 다른 면은 밖으로 접하는 Z자 구조의 시제 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갤럭시Z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출시 계획은 미정이다. 샤오미도 올해 중 더블폴딩폰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블폴딩폰은 화면을 완전히 펴치면 10인치 이상의 화면으로 태블릿처럼 사용 가능하다. 화면을 한번만 접어 노트북 형태의 사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번 접으면 스마트폰 3개를 쌓아둔 것처럼 두꺼워지는 것은 단점이다.

업계관계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접는 추세에 대해 “하나의 기기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경험을 다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기존 스마트폰처럼 소비자의 많은 구매로 이어지는 않더라도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다 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우한폐렴, 경제에 우환될라 성장률 2.4% 달성 ‘걸림돌’

이주열 “경계감 갖고, 면밀 점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에도 투자, 수출, 민간소비가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 목표한 성장률 2.4% 달성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27일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을 재점검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네 번째로 발생하는 등 우한 폐렴 사태가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나선 것.

한은은 이날 오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를 열었다. 한은은 당초 28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한은은 설 연휴 기간 중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 이어 이날 일본에서도 주가와 금리가 상당 폭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우한 폐렴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우한 폐렴의 전개상황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3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긴장감 도는 中 텐안먼 광장

27일 중국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 인접한 텐안먼 문에서 현병대원들이 안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중국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피하기 위해 이번주 설 연휴를 연기하며 바이러스 퇴치 방안을 확대했다.

/연합뉴스

‘우한폐렴’ 4번째 확진… 경보 격상

〈주의→경계〉

中우한시서 귀국한 55살 韩남성
감기 증세 4일 만에 보건소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이 확진자는 입국 당시 공항에서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여서 지역내 감염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한 55세 한 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판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환자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25일 고열(38도)과 근육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한 뒤 보건소에 신고돼 능동감사를 받았다.

지난 26일 근육통이 악화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돼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7일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54·한국인)와 접촉한 사람을 총 74명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에 나섰다.

이 가운데 1명(호텔 종사자)은 관련 증상을 보여 격리하고 검사를 시행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접촉자는 가운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 이에 따라 가족과 동행자 14명은 자가 격리했으며 나머지는 접촉자는 능동감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지역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에 커짐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31일 농협회장 선거 10명 최다후보 접전

‘농민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본 후보만 무려 10명이다. 역대 최다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판세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관련기사 4면〉

27일 농협중앙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후보자로 총 10명이 등록했다. 투·개표는 오는 31일에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본후보 10명(기호 순)은 ▲1번 이성희(70) 전 낙생농협 조합장 ▲2번 강호동(56)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3번 천호진(57) 전 농협북대구공판장 사장 ▲4번 임명택(63) 전 언주로(현 선정릉) 지점장 ▲5번 문병완(61) 보성농협조합장 ▲6번 김병국(68) 전 서종주농협조합장 ▲7번 유남영(64) 정읍농협 조합장 ▲8번 여원구(72) 양서농업협동조합장 ▲9번 이주선(68) 송악농업협동조합장 ▲10번 최덕규(69) 전 가야농협조합장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